

조선대 전국학생미술실기대회 개최



조선대학교는 최근 교내에서 제47회 전국학생미술실기대회를 열었다. 서양화·한국화·민화·애니메이션 등으로 나눠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중·고등학생 1684명이 참가해 솔씨를 겨뤘다.

<조선대 제공>

농협 광주본부 농촌일손돕기 봉사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정종순) 직원들은 최근 광산구 지정동 봉정마을 김승현씨 농가에서 냉굴도토리를 수확하는 등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농협 광주지역본부 제공>

전남대 학생홍보대사 17명에 위촉장



전남대(총장 김윤수)는 지난달 31일 영어·중국어·일반 등 3개 분야 학생홍보대사 17명(광주캠퍼스 15명, 여수캠퍼스 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전남대 제공>

구례교육청, 이정희 원장 기탁 장학금 전달



구례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관내 중학생 15명에게 이정희 원장이 기탁한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구례교육청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월) 월례회=5일(토) 오후 6시30분
금강산식당 062-224-0808.

알림

▲한명진·조준자씨 차남 응희군 김창호·조윤순 쌍녀 명희양=5일(토) 오후 1시 경복궁 웨딩컨벤션 2층(미소홀)
▲양재희(나주시청 사이클감독)·김영미씨 장남 인근 김희권·임영숙 쌍녀 지은(전남대병원) 양=5일(토) 오후 1시30분 상무지구 조선컨벤션웨딩 춘추관홀 1층.

▲주옥균(전 광주시 건설국장)·이정애씨 차남 성호(코엠커머셜 사장)·임재익(서울 남향주택(주) 사장)·인재순 쌍녀 회정양=13일(일) 낮 12시50분 광주에벌루션 웨딩컨벤션 3층(컨벤션홀)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이강

미훈모 시설 입소 안내. 062-227-8877.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사 보호소 무료 상담=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시보호 상담. 국내 입양 상담. 미훈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062-222-1095.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권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 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 062-363-2240.

▲홀트이동복지회 광주이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훈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모집

▲광주시 북구자원봉사센터 문화 자원봉사 큐레이터 모집=5일(토) 까지 10명 모집, 공원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문화 자원봉사 활동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원봉사자. 활동기간은 11월까지.

지방선거서 첫 주권행사 베트남 새댁 띤 떤 하이(이하은)씨

“투표할 수 있다니 진짜 한국사람 된 것 같다”

올 2월 국적 취득··· “다문화가정 관심 후보 표 줄것”

지난 2005년 1월 베트남에서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한 떤 하이(25·광주시 서구 양동)씨. 하이 씨는 결혼 6개월 만인 2005년 7월 한국에 입국했다.

하지만 하이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이씨는 지난 2월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3월에는 이름도 ‘이하은’으로 바꿨다.

이씨에게 2월 1일 ‘제 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씨는 남편과 함께 후보들에 관한 기사가 실린 신

문을 읽고 텔레비전으로 후보 론회도 지켜보면서 선거일을 기다려왔다. 이씨는 “오래전부터 마음에 드는 후보들을 모두 정했다”고 말했다.

이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후보들의 조건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이다. 이씨는 “평소에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가져주고 좋은 공약을 많이 내세운 후보들에게 표를 줄 것”이라고 말해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특히 하이씨는 다른 선거보다 자신이 사는 서구의 구정장이 누가 될지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이씨도 투표 과정은 굉장히 어렵게 느끼고 있었다. 이씨는 “마상 투표소에 가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것 같다”며 “남편이 하는 것을 먼저 지켜본 뒤 따라 해 봐야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또 이씨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지나친 유서활동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광주시 서구 양동 건강 가정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이씨는 “후보들을 이해하지만 너무 자주 찾아와서 ‘한 표 부탁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며 가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투표하려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한마디 던졌다. 자신은 선거권이 있어서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주어진 표를 행사하지 않고 나중에 불평만 늘어서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한국사람이 된 것 같다”며 밝게 웃었다.

</김기자 kimho@>

</사진=최현배기자 choi@>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몽골서 의료봉사활동 편다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오희균 교수·이하 친원)은 몽골 울란바토르 Health Sciences University 치과대학과 공동으로 몽골에서 여름 의료봉사를 펼친다.

이는 최근 전남대 치전원 시설을 견학하려온 몽골 치과대학 교수진과 오희균 원장과의 협약에 의해 결정됐다. (사진)

의료봉사 기간은 오는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6박7일이다.

이번 몽골 의료봉사는 전남대 치전원 20여명의 학생들을 포함해 임상교수들과 전남대 치대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총동창회 회원들로 구성된 ‘해외 치과의료봉사단’ 주축으로 진행된다.

몽골의 의료 및 치의학 교육환경을 고려해 치과 의료

장비·약품 등 의료봉사에 필요한 모든 물품은 전남대 치과대학 동창회 후원으로 치전원측에서 부담하며, 의료봉사 참가자들은 몽골 치과대학 학생들 집에서 숙식을 제공받기로 했다.

오희균 치전원장은 “몽골은 성장 잠재력은 큰 것 같으나 의료 환경을 포함한 모든 것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서 선진 의료기술의 전수 등 많은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앞으로 한국 의료의 세계화를 위해 기회가 되는대로 몽골에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무형문화재 옥장 장주원

광주명예 시민 된다



광주시는 옥공에 부문 국가 중요무형문화재인 옥장 장주원(73)씨에게 광주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고 최

경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4월 녹록

봉황 연 황도 등 17점을 광주시에 기

증하는 등 모두 46점의 옥공에 작품

을 기증해 문화창달에 기여한 공로

가 인정됐다.

장씨는 1960년 옥공에

에 입문, 우리나라 전통 옥공에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가미해

예술 차원으로 끌어올린 명인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전 롯데 야구선수 정수근

MBC ESPN 해설 맡는다

전 롯데야이언트 야구 선수 정수근(33)이 MBC ESPN에서 야구 해설위원으로 데뷔한다.



1일 MBC ESPN에 따르면 정수근은 7일 국내 프로야구 시합인 경찰청 대전 경기를 시작으로 이 채널에서 야구 해설을 맡는다. 지난 1995년 데뷔한 정수근은 15년의 프로 생활 동안 통산 타율 0.280을 기록하고 4년 연속 도루왕을 차지하며 활약했지만 작년 9월 을주 사건이 불거져 은퇴했다.

MBC ESPN은 “정수근 선수가 현역시절 뛰어난 입담을 과시했고 남다른 애정으로 야구에 대한 열정을 전해주는 면모가 돋보인다”며 “현장에서의 경험을 살려 시청자에게 쉽고 재미 있는 야구 중계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수종·하희라, 정혜영·선 부부

‘稅美來’ 홍보대사



국세청(청장 백용호)은 최근 국세청 명예홍보원 겸 ‘대한민국 세미래(稅美來)’ 캠페인 홍보대사에 최수종, 하희라 부부(사진)와 정혜영·선 부부(위쪽)를 위촉했다.

국세청은 “두 부부가 성실하게 납세를 실천하고 있고,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 위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두 부부는 앞으로 2년간 국세청 홍보 포스터 모델, 세금신고 안내 도우미 등 다양한 국세청 홍보에 참여해 활동하게 된다. ‘대한민국 세미래’ 캠페인은 납세자의 성실납세와 국세청의 공정세정으로 밝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자는 의미로 벌어진 캠페인이다.

</연합뉴스>

인사

◆광주지방국세청
◇서기관 승진 ▲신고분석2과장 김성철
◆동부중권
◇임원 승진(상무) ▲중부호남지역본부장 하병문

미 조각가 부르주아 별세



여성 본연의 감성을 표현하며 젊은 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프랑스 출신의 미국 여성 조각가 루이스 부르주아가 지난달 31일 숨졌다. 향년 98세.

부르주아의 대표작 중 하나로 거대한 어미 거미를 형상화한 청동 조각상 ‘마방 디아파종’은 국내에도 잘 알려졌다. 부르주아는 1999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는 황금사자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또 100살 가까운 고령에 왕성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며 은둔생활 속 작업에 몰두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연합뉴스>

피아니스트 임동혁 13일 장가 간다



피아니스트 임동혁(26)이 오는 13일 오후 6시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그랜드볼룸에서 화촉을 밝힌다.

1일 임동혁 소속사에 따르면 1살 연하인 신부 김모 씨는 현재 경영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 두 사람은 2년 전 친지인이 조대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나 사랑을 키워왔다. 신혼집은 미국 뉴욕에 구비된다.

임동혁은 2001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3위(수상 거부), 2005년 쇼팽 콩쿠르 3위, 2007년 치아롭스키 콩쿠르 4위 등 세계 3대 피아노 콩쿠르

에서 입상한 피아니스트로, 2001년 클래식 명가 EMI에서 발표한 데뷔 음반으로 권위 있는 클래식 음반 상인 ‘황금 디아파종’상을 받았다.

임동혁은 오는 26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웨일리스 고티에 카위숑과 함께 쇼팽과 라흐마니노프의 작품을 연주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반시민. 매월 24일 월례회 및 문화답사, 학술발표회 등 예정. 016-686-6491.

▲푸른학당 지원봉사 및 학생 모집=문화 교육(한글과정), 초등·중등 과정, 검정고시반. 062-529-1188, 010-9940-1769.

부음

▲기우명씨 별세 용(개인사업)·대전·개인사업·영미·유경·소연씨 부친상 선 혼(해남한국병원장)·김민희(아시아나 항공 지점장)씨 빙부상=발인 3일(목) 상무병원 장례식장 특실. 062-600-7406.

▲이금순씨 별세 정찬우씨 모친상=발인 3일(목) 그린장례식장 9분향소. 062-250-4455.

▲이희철씨 별세 상홍(조대병원 정형외과 교수)·상목(코오롱산자연구소장)씨 부친상=발인 3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